

# '알짜' 외인 4인방 수혈 내실 다진 롯데의 겨울

FA 시장서 지갑 열기 보다 탄탄한 전력 구성에 공들여 투수 로드리게스·비슬리 마사야 등 조종한 계약 성사 황금장갑 레이에스도 잔류 "내년 시즌 기대해 주세요"

올해 전반까지 '3강' 체제를 구축했다가 후반 기 연패와 함께 신기루처럼 가을야구의 꿈이 사라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이번 스토브리그는 예상 밖이라는 평이 많다.



김태형 감독 3년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둔 가운데 지갑을 열어 자유계약선수(FA) 영입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롯데가 선택한 방법은 지갑을 닫는 것이었다.

올 시즌 성적에 실망한 팬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FA 시장에서 선수 한 두 명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롯데 구단은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 구단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길을 택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요한 가운데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정중동' 그 자체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음은 줄이는 대신, 전력의 핵심인 외국인 선수 구성을 알차게 해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롯데는 최근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27)와 제러미 비슬리(30), 아시아 쿼터 투수 교야마 마사야(27)를 영입했다.

또한 올 시즌 KBO리그 외야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받은 빅터 레이에스(31)와 재계약해 2026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레이에스는 2024년 타율 0.352에 202안타, 올해 타율 0.326에 187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그러나 두 시즌 통산 28홈런에 그쳐 거포에 목마른 일부 팬들은 교체를 주장하

기도 했다.

외부의 목소리에도 롯데 구단은 알짜잡이 레이에스와 재계약을 결정했다.

2시즌 연속 전 경기 출장한 그의 프로 의식과 2024년 0.56이었던 볼넷/삼진 비율이 올해 0.88로 상승한 점은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롯데 구단은 국군체육부대에서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포 내야수 한동희가 3루수로 안착한다면 레이에스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투수진 면면도 화려하다.

로드리게스는 키 193cm, 체중 97kg의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춘 우완 정중동과

최고 시속 152km에 달하는 목직함 직구에 슬러이다, 체인지업을 섞어 던진다.

2022년 빅리그에 데뷔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그는 2023년과 2024년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뛰었다.

아시아 야구 경험과 타자들의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적응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만의 강점이다.

함께 영입된 비슬리는 강력한 구위로 대결하는 유형이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등을 거친 그는 NPB 한신 타이거스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무대를 경험했다.

비슬리의 최대 무기는 평균 150km를 넘는 패스트볼과 타자 앞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슬러이다.

타살점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무대에서 선발과 불펜을 모

소화해 다양한 상황에 대

한 경험도 풍부하다.



연합뉴스

롯데레이에스, 연합뉴스



안세영,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서 日 미야자키 2-0 완파  
올 15개 대회 69경기 65승 기록... 시즌 최고 승률 94.2%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사진)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조별리그에서 4강 진출을 확정하고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월드투어 랭킹 9위)를 경기 시작 33분 만에 2-0(21-9 21-6)으로 완파했다.

시즌 15개 대회에 출전한 안세영은 이 때까지 총 69경기를 치러 65승을 거두고 승률 94.2%를 기록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와 아르다니를 2-1로 꺾은 데 이어 2승을 먼저 챙기며 조 1위로 올라섰다.

수 중 단일 시즌 역대 최고 승률이다.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2-3에서 3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탄 뒤 내리 7점을 쓸어 담으며 기선을 제압했고 21-9로 첫 게임을 이겼다.

2게임은 더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시작과 동시에 6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완전 주도권을 장악했고, 미야자키에게 단 6점만 허용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와 아르다니를 2-1로 꺾은 데 이어 2승을 먼저 챙기며 조 1위로 올라섰다.

## 멀티골 음바페, 이상 호날두까지 '단 한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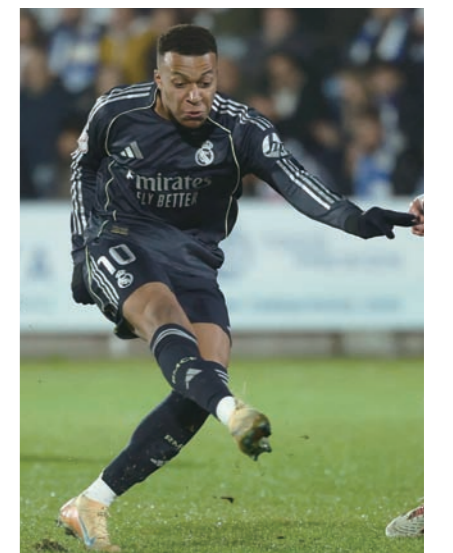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가 스페인 프로 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대선배이자 자신의 이상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대기록까지 1골만을 남겼다.

음바페는 18일(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타라베라 델라 레이나의 엘프라도 경기장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3부 리그 타라베라와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32강전에서 풀타임을 뛰며 멀티골을 터뜨려 팀의 3-2 승리에 앞장섰다.

음바페는 이로써 올 한 해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공식전 58골을 기록해 2013년 호날두가 세운 구단 역대 단일 연도 최다골 기록(59골)에 단 한 골 차로 다가섰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더불어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손꼽히는 호날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공식전 438경기에서 450골을 폭발했다.

호날두가 프로 무대에서 넣은 통산 골은 811골이다. 여기에 포르투갈 A대표팀



음바페가 18일(한국 시간) 스페인 타라베라 델라 레이나의 엘프라도 경기장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3부 리그 타라베라와 코파 델 레이 32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 3-2 승리에 앞장섰다. 음바페의 시즌 58호 골 장면. AFP-연합뉴스

에서 넣은 골(143골)을 더하면 성인 무대에서 도합 954골을 기록 중이다.

이런 호날두를 음바페는 늘 자신의 '이상'이라 말해왔다.

# 김소형 원방 좋은당黨

## 국내산 원료로 만든 건강한 여주진액, 정성껏 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여주 100%**

인증번호: 제 13100551 호

**인 주 서**  
인증 구분: 유기농산물

유기농 여주 (국내산)

매일! 챙기는 한 포의 루틴!  
중·장년층에게도 꼭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작은 습관

중·장년이라면 하루 한 포!  
김소형 원방 좋은당 (80ml X30포)  
일체의 화학 첨가물 없이 100% 천연재료 사용.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조원: (주)엔트릭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1길 30 유통전문매원(주)윗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남신빌딩 4층

**생활 활력의 시작!**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함께하세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몸!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느껴보세요!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여주에서 유래한 유기농 여주만을 100% 담아냈습니다.

드시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 하루 한 포면 모두 다 OK!  
그 외에 여주와 궁합이 잘 맞는 9가지 원료를 함유!

돼지감자 (국내산)  
바나바

**매일 한 포, 활기찬 하루의 시작!**

##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바나바

을 조화롭게 배합

신중하게 선별한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소형 한의원(원장)

**김소형 원방 좋은당과 함께하시면 좋은 분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챙기고 싶은 분 / 달콤한 음식을 즐기시는 분 / 회식이 잦은 직장인 / 한식을 즐기시는 분 / 활동량이 적은 부모님 / 건강한 하루 루틴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

1박스 59,800원	▶ 49,800원
2박스 99,600원	▶ 79,800원
4박스 199,200원	▶ 148,000원
8박스 398,400원	▶ 269,000원

행사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1588-3398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윗이랑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혜택